

주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능완성 **W13(1~8)**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이와 같은 꺾쇠의 의미는, 지문을 보통 3등분 혹은 2등분을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꺾쇠로 나뉜 각 덩어리는 ‘요약’ 부분의 각 번호와 일치합니다.
2.  화살표에는 이와 같이 일방향과 쌍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향은 보통 답의 근거를 나타내며, 쌍방향은 두 단어, 문장이 반대의 의미임을 나타냅니다.
3.  의 의미는
 - a. 당연히, 중요 지문입니다. 부여 기준은 ‘평가원 변형 가능성 X 난이도’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는 ‘평가원스럽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좋고 어려운 지문도 평가원 유형 변형이 되지 않으면 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변형 유형은, 가장 1순위로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2순위로 ‘흐름X’를, 3순위로 ‘어법, 지칭’을 노립니다. 이 순위는 당연히, ‘가장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는’ 순서입니다.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의 경우 본인이 박세게 공부한 EBS 지문이 나온다면, 지문 당 2, 3초컷을 하게 되는데 메인 유형인만큼 그러지 않은 사람이 2, 3분이 걸리는 데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연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해 풀겠지요. 참고로 ‘흐름X’ 변형이 제가 두는 중요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무난히 하나의 주제를 잘 말하고 있는’ 지문이면 변형 가능한 ‘흐름X’ 유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 최종 final 선별에는 이 ‘흐름X’ 변형 지문은, 효율성을 위해 대다수 빠질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b. 당연히, ‘별표 지문만 보면 되나요? ㅎㅎ 헤 히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볼 지문과 안 볼 지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선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매년 아깝게 놓치는 EBS 직접연계 지문이 1, 2개 씩 꼭 있습니다(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선별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효율성 甲이지만..). 그렇지만 매년 제 선별 지문에서 직접연계의 상당수가 나오므로,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별표를 준 지문은 충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좋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고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 되죠. 따라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중요한 수험생의 특성상, 제 별표 지문(A)을 먼저, 또 여러 번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제가 별표를 주진 않았으나 변형을 했거나 아쉽다고 comment한 지문(B)을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 지문(C)도 단어와 해석을 챙기며 보시기 바랍니다. A 지문은 7번, B 지문은 5번, C 지문은 3번 이상(단어를 다 암기한 상태에서) 해석하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제발, ‘요약’만 보며 내용만 암기하는 짓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지문 해석이 ‘주’이고, 제 요약과 변형은 ‘보조’입니다. 이 자료는 ‘영어 실력을 EBS로 늘리면서 연계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손 해석은 다 해야 하나요??**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하길 바랍니다. 별표 지문은 웬만하면 손 해석을 전부 다하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지문이 '속발음'으로 해석이 술술 된다면(정말 되는 건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그 중 '잘 안 되는 문장'만 직접 손 해석 해보며 고민하고 교정하기 바랍니다. 별표 지문 외에도 본인이 해석 안 되는 지문은, 각 잡고 다 해석해봐야지요.
2. **6, 9평에 간접, 직접으로 나온 거 수능에 안 나오나요??** 평가원에서 '응 안 낼거야'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경험적으로'는 6, 9평에 간접 및 직접으로 나온 게 다시 수능에 직접연계 핵심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간접연계' 지문의 경우, 좋은 지문이라면 해당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5%는 된다고 봅니다.
3. **단어 적으신 거 다 외워야 하나요??** 네.
4. **한 지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ㅠㅠ 그냥 핵심 내용만 잡고 넘어갈까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늘면, 금방 하고 넘어갑니다. 단어나 해석이 막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 지문 당 시간을 오래 투자하며 '제대로' 단어 외우고 해석 하고, 다시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 해석하는 작업을 하며 지문들을 본다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어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박을 까서 맛있게 먹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단어 외우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영단어 암기'라는 것이 본인의 '절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친구는, 밥먹으면서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보통 좋은 결과를 내더군요. 단어가 없으면 총을 쏠 수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6. **구문 공부 따로 해야 할까요??** 이는 썸마다 개인 차가 있으나, 저는 '실전파'입니다. EBS 지문을 바로 실전으로 해석하면서 '아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를 계속 익히다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면, 인강이나 책으로 한 번 정리하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7. **이번 6평 29번과 같은 유형이 9평, 수능에도 계속 나올까요??** 그걸 제가 알면 지금쯤 로또 당첨되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ㅎㅎ. 모릅니다. 9평 가봐야 알고, 9평에 나온다 해도 그게 수능에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 9평에 안 나왔다고 수능에 안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변형포인트'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해당 지문을 '여러 번 해석'해서 아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3초 컷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석하느라 늘은 영어 해석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꼭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통합본 구매 인증(파일 인증X, 구매 인증O)을 위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석하는 판과 해석 되어있는 판을 제외한 지문 분석만 있는 버전,
위 버전에서도 별표 지문만 있는 버전,
이렇게 두 버전을 보내드립니다.
Shean.T 드림.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통합본 구매 인증(파일 인증X, 구매 인증O)을 위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석하는 판과 해석 되어있는 판을 제외한 지문 분석만 있는 버전,
위 버전에서도 별표 지문만 있는 버전,
이렇게 두 버전을 보내드립니다.
Shean.T 드림.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Check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inform you that unfortunately I am unable to pay the medical bill associated with the back surgery I received on January 9, 2018. I am not **disputing** the amount stated nor **am I unwilling to** pay it. I am simply not in a financial situation where it would be possible to **meet** the current **terms**. My current income (see enclosed **statements**) covers my day-to-day living **expenses**, leaving too little to make the agreed monthly payments.

Therefore I propose that I pay a smaller amoun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o meet the **obligation**, or until my circumstances change and I can pay the normal amount. I understand that this is not ideal, but it is the only feasible way for the payment to be made in full.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f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from me, I will be willing to provide it. Sincerely, Sabrina Dempsey

* feasible: 실현 가능한



Summary

1. Problem: 돈이 없어서 척추 수술 받은 거 돈 못 낼 거 같아요 생활비도 빠듯함
2. 좀 더 할부 기간을 늘리거나, 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3.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KEY Point

1. expend: 지출하다, expand: 확장하다, extend: 늘리다



Vocabulary

1. dispute: 논박하다, 반박하다
2. be (un)willing to v: ~할 의향이 있다(없다)
3. statement: 진술, 내역서
4. meet the terms: 조건을 충족시키다
5. expense: 지출
6. obligation: 의무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Check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inform you that unfortunately I am unable to pay the medical bill associated with the back surgery I received on January 9, 2018. I am not disputing the amount stated nor am I unwilling to pay it. I am simply not in a financial situation where it would be possible to meet the current terms. My current income (see enclosed statements) covers my day-to-day living expenses, leaving too little to make the agreed monthly payments. Therefore I propose that I pay a smaller amoun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o meet the obligation, or until my circumstances change and I can pay the normal amount. I understand that this is not ideal, but it is the only feasible way for the payment to be made in full.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f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from me, I will be willing to provide it. Sincerely, Sabrina Dempsey

* feasible: 실현 가능한

해당 관계자 분에게, / 알려드리기 위해 이메일을 드립니다 / 불행히도 제 의료비 지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어요 / 2018년 1월 9일에 제가 받은 척추 수술과 관련된. / 제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 단지 제 자금 상황으로는 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제 현 수입은(동봉된 내역서를 봐 주세요) 매일 생활비에 쓰고 있습니다, / 매달 정해진 지출 처리하기에도 돈이 거의 남지 않지요. / 따라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 더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게 어떨지요 / 그 의무 금액을 맞추기 위해, / 아니면 제 상황이 바뀌어 정액 그대로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 이상적이진 않은 건 알지만, / 유일한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 금액을 완전 청산하기 위해. /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정보를 요구하신다면, /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 사브리나 뎀프시 드림.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1번

Dear Sean, I'm excited about our plans for this year's revamped **conference**. As you know, **pulling off** this event will require a lot of planning and writing. We'll need to create an email plan to blast potential **attendees**, write event page copy, and then develop the agenda and presentations as well. **Leading up to** the event, I'd like to work from home two days a week. In **previous** roles, working from home increased my **productivity**. Wednesday and Friday would be ideal work-from-home days, since we don't have any team-wide meetings. **Of course**, I can be completely **flexible** and come into the office if we ever do need **face-to-face** time, and I'll be available by phone and email on work-from-home days, in case anything comes up. Eager to hear your thoughts on this plan. Best, Carrie

* revamp: (더 보기 좋도록) 개선하다 ** blast: 단체 이메일을 보내다



Summary

1. 올해 회의 잘 진행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택 근무를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고 싶은데...
3. 자택 근무 시에도 필요하면 당근 출근할테니 답장 주십시오 ^^



KEY Point

1. pull off 해내다 라는 이런 표현은 꼭 챙기자. 모르면 그냥 멍.. 당근 깊이 박혀 있던 무언가를 끄꽂대서 결국 딱 뽑아내는 느낌과 연관지어 외우면 된다. 아니면 약간 화장실에서 그 상황도 상상할 수 있겠다..
2. 이런 걸 요구해도 해고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한데.



Vocabulary

1. conference: 회의
2. pull off: 해내다
3. an attendee: 참석자
4. leading up to: ~가 다가오면서
5. previous: 이전의
6. productivity: 생산성
7. flexible: 유연한
8. face-to-face: 대면하는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1번

Dear Sean, I'm excited about our plans for this year's revamped conference. As you know, pulling off this event will require a lot of planning and writing. We'll need to create an email plan to blast potential attendees, write event page copy, and then develop the agenda and presentations as well. Leading up to the event, I'd like to work from home two days a week. In previous roles, working from home increased my productivity. Wednesday and Friday would be ideal work-from-home days, since we don't have any team-wide meetings. Of course, I can be completely flexible and come into the office if we ever do need face-to-face time, and I'll be available by phone and email on work-from-home days, in case anything comes up. Eager to hear your thoughts on this plan. Best, Carrie

* revamp: (더 보기 좋도록) 개선하다 ** blast: 단체 이메일을 보내다

션에게, / 저는 올해 개선된 회의에 대한 계획에 들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이 이벤트를 해내는 것은 / 많은 기획과 서면 작업을 요구할 겁니다. / 저희는 이메일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잠재 참석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고, / 이벤트 페이지를 작성하고 / 의제와 프레젠테이션 또한 발전시킬. / 이 이벤트에 다다르면서, / 저는 일주일에 이틀 자택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 이전 업무에서는, / 자택 근무가 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 수요일과 금요일이 이상적인 자택 근무 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요일에 팀 회의가 없기 때문이죠. / 당연히, 완전 유도리 있게(일본말 같긴 한데..ㅎ) 출근할 수 있습니다 / 대면해서 처리할 필요가 생긴다면 말이죠, / 그리고 전화 및 이메일로 자택 근무 날에도 연락 가능합니다, / 어떤 일이든 생길 경우에 말이죠. / 해당 사안에 대해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캐리 드림.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심경, 2번

My mother and I climbed a short ladder into the hayloft. We **crawled** to the far end under the **sloping roof** and buried ourselves beneath loose piles of hay. We lay **motionless**. Moments later we heard voices in German shouting “Wo sind die Juden?” (Where are the Jews?) We froze in terror. My mother covered me with her body. We held our breaths. We heard one of the men stomp halfway up the ladder and **fling open** the trapdoor. Leaning in, he **jabbed violently** around in the straw with his bayonet. The tip was only inches away from us. I felt my life slipping away. Suddenly, he stopped. Shouting in anger that there was no one up there, he **descended in fury** to the barn. **Cursing** the Fedorow family, the men left. As their voices faded away, my mother’s whisper broke the silence, “Trusiu, we are alive.” How **fine** is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 hayloft: 건초 다락 ** stomp: 킁킁거리며 걷다 *** bayonet: 총검



Summary

1. 엄마와 나는 건초 더미 속에 숨죽이고 있었음
2. 독일군이 오더니 건초를 막 찌르는 거임. 거의 목숨이 달아나는 줄..
3. 다행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독일군 애들이 떠남. “살았다!”



KEY Point

1. 일제강점기 같음.. ㅠ
2. fine을 ‘좋은’ 이라고 해석하진 않겠지?



Vocabulary

1. crawl: 기어가다
2. sloping roof: 경사진 지붕
3.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4. jab: 찌르다
5. fling open: (문을) 젓혀 열다
6. violently: 격렬히
7. descend: 내려가다
8. in fury: 격노하여
9. curse: 욕하다
10. fine: 미세한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심경, 2번

My mother and I climbed a short ladder into the hayloft. We crawled to the far end under the sloping roof and buried ourselves beneath loose piles of hay. We lay motionless. Moments later we heard voices in German shouting “Wo sind die Juden?” (Where are the Jews?) We froze in terror. My mother covered me with her body. We held our breaths. We heard one of the men stomp halfway up the ladder and fling open the trapdoor. Leaning in, he jabbed violently around in the straw with his bayonet. The tip was only inches away from us. I felt my life slipping away. Suddenly, he stopped. Shouting in anger that there was no one up there, he descended in fury to the barn. Cursing the Fedorow family, the men left. As their voices faded away, my mother’s whisper broke the silence, “Irusiu, we are alive.” How fine is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 hayloft: 건초 다락 ** stomp: 쿵쿵거리며 걷다 *** bayonet: 총검

어머니와 나는 짧은 사다리를 타고 건초 다락에 올랐다. / 우리는 물매 지붕 아래 가장자리로 기어들어가 / 흐트러진 건초 더미에 우리를 파묻었다. /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 잠시 후 우리는 독일어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 “유대인들 어딴어?” /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얼었다. / 어머니가 나를 감싸 안아 주셨다. / 우리는 숨을 멈추었다. / 그 남성 중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쿵쿵 거리며 걸어 올라와 / 천장 문을 열어 젖히는 걸 들었다. / 기대면서, 그는 격렬히 찔러 댔다 / 밀짚을 그의 총검으로. / 총검 끝 부분이 우리와 몇 인치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 목숨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 갑자기, 그가 멈추었다. / 화나서 소리치면서 / 위에 아무도 없다고, / 그는 화나서 마구간으로 내려갔다. / 페도로우 가족을 욕하면서, 남자들은 떠났다. /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면서, / 어머니의 속삭임이 침묵을 깼다, / “이루시우, 우리 살았다.” / 생사의 경계가 한 곳 차이구나!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3번

RappRides is an all-volunteer system that takes **seniors** on shopping trips to Warrenton, Culpeper, Luray, and Front Royal on **successive** Fridays. RappRides just completed its first full month and the verdict is in. Seniors love it. More than a **dozen** went on trips in March. They and others at the Senior Center look forward to more trips in upcoming months. That's the problem. With one exception, the only seniors who have requested trips also attend the Senior Center. Do you want to get out of the house for a few hours? It doesn't have to be for shopping. To arrange a pickup, call Darcy Canton, Senior Center Coordinator, at 540-987-3638. Darcy will **assign** a driver, who will call the senior to **coordinate** a pickup. RappRides is a great service, and it's free. Let's **take advantage of** it.

* verdict: 판정



Summary

1. RR은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을 데리고 쇼핑 나들이를 감.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심!!
2. Problem: 한 분만 제외하고 사실상 다 노인정 분들이 가심
3. (노인정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가고 싶으시면 여기 전화하세요. 무료니까 많이 애용 바람!



KEY Point

1. take advantage of: 약간 이용해 '먹는' 느낌. 챙기자!



Vocabulary

1. a senior: 연장자, 노인
2. successive: 연속적인
3. a dozen: 십 여 개
4. assign: 배정하다
5. coordinate: 조율하다
6.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3번

RappRides is an all-volunteer system that takes seniors on shopping trips to Warrenton, Culpeper, Luray, and Front Royal on successive Fridays. RappRides just completed its first full month and the verdict is in. Seniors love it. More than a dozen went on trips in March. They and others at the Senior Center look forward to more trips in upcoming months. That's the problem. With one exception, the only seniors who have requested trips also attend the Senior Center. Do you want to get out of the house for a few hours? It doesn't have to be for shopping. To arrange a pickup, call Darcy Canton, Senior Center Coordinator, at 540-987-3638. Darcy will assign a driver, who will call the senior to coordinate a pickup. RappRides is a great service, and it's free. Let's take advantage of it.

* verdict: 판정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목적, 3번

RappRides is an all-volunteer system that takes seniors on shopping trips to Warrenton, Culpeper, Luray, and Front Royal on successive Fridays. RappRides just completed its first full month and the verdict is in. Seniors love it. More than a dozen went on trips in March. They and others at the Senior Center look forward to more trips in upcoming months. That's the problem. With one exception, the only seniors who have requested trips also attend the Senior Center. Do you want to get out of the house for a few hours? It doesn't have to be for shopping. To arrange a pickup, call Darcy Canton, Senior Center Coordinator, at 540-987-3638. Darcy will assign a driver, who will call the senior to coordinate a pickup. RappRides is a great service, and it's free. Let's take advantage of it.

* verdict: 판정

RR은 전부 자원봉사 시스템입니다 / 어르신들을 데리고 쇼핑 나들이를 가는 / 이러한 곳들로 / 매주 금요일에. / RR은 첫 한 달을 막 마무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 열 분 이상이 3월에 쇼핑을 갔습니다. / 이 분들과 노인정의 다른 분들도 차후 나들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몇 개월 간. / 이게 문제입니다. / 한 경우를 제외하고, 쇼핑 나들이를 신청한 어르신 분들만 / 또한 그 노인정에 나가십니다. / 몇 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싶으신가요? / 쇼핑 때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 픽업 차량 대기를 원하시면, / 직원 D에게 전화하세요. D가 운전사를 배정할 겁니다, / 해당 어르신에게 전화하여 픽업 사항을 조율할. / RR은 훌륭한 서비스이고, 무료입니다. / 잘 활용해보세요!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분위기, 4번

Sarah and I turned right into a street called Walton Street where there were **stalls** down each side with bright lights. As we walked down this street we found it hard to stop and look at the stalls because we were being pushed along by the **crowds**. Sarah shouted that she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About half way down the **fair** opened out and the pushing stopped. We found ourselves near to the side of a big building, which a sign said was the Army Drill Hall, and stood for a little while to get our breath back and decide what to do first. We started by walking down through the stalls; there were **rows of bazaars**, ring boards, shooting saloons, **gingerbread** stalls, and stalls displaying all sorts of fruits and **spices**. Sarah said she didn't know where to look first and thought it would be easy to spend a lot of money there if she had it.



Summary

1. 사라와 내가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로 밀치고 난리
2. 중간쯤 오니까 조금 널널해져 숨을 고르고 뭘 구경할까 살펴봄
3. 갖가지 파는 상점들이 많아 돈이 있다면 다 사버리고 싶을 정도!



KEY Point

1. 바자회의 바자는 영어였다. bizarre(기이한)과 구분하기!



Vocabulary

1. a stall: 가판 상점
2. crowd: 사람들, 군중
3. a fair: 박람회, 축제
4. rows of: 줄지어 있는
5. bazaar: 바자
6. gingerbread: 생강 과자
7. spice: 향신료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강: 분위기, 4번

Sarah and I turned right into a street called Walton Street where there were stalls down each side with bright lights. As we walked down this street we found it hard to stop and look at the stalls because we were being pushed along by the crowds. Sarah shouted that she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About half way down the fair opened out and the pushing stopped. We found ourselves near to the side of a big building, which a sign said was the Army Drill Hall, and stood for a little while to get our breath back and decide what to do first. We started by walking down through the stalls; there were rows of bazaars, ring boards, shooting saloons, gingerbread stalls, and stalls displaying all sorts of fruits and spices. Sarah said she didn't know where to look first and thought it would be easy to spend a lot of money there if she had it.

사라와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 WC라는 거리로 들어갔다 / 이곳엔 양쪽에 길거리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 밝은 조명을 켜. /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 걸음을 멈추어 상점들을 보는 게 / 사람들이 우리를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 사라의 소리쳤다 /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 중간쯤 오자 행사가 더 널리 펼쳐졌고 사람들이 밀치는 게 멈추었다. / 우리는 한 큰 건물 측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다, / ADH라고 쓰여 있던, / 그리고 얼마간 서있었다 / 숨을 돌리기 위해 / 그리고 처음으로 무엇을 할 지 결정하기 위해. / 우리는 상점들을 통해 내려가면서 시작하였다; / 바자, 링보드, 사격장, 생강 과자집, 그리고 과일, 향신료들을 전시한 상점들이 줄 지어 있었다. / 사라의 말했다 / 처음에 어디를 봐야할 지 몰랐다고 / 그리고 생각했다 / 거기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기 쉬겠다고 / 돈이 있다면. /

그치 ㅋㅋㅋ 돈이 있으면 ^^

What most parents do is stop sharing books as soon as a child can read alone. That makes reading a **solitary** happening, with no chance to talk about a book or discuss what it is saying. Read aloud together. Read alone yourself, then say, “Have you read this book? I really liked it.” Once you begin to be book-sharers you will have no end of **delight** in sharing. Our son brought us a copy of Brian Jacques’ Redwall and said, “I think you’ll like this. It’s a good book.” We respect each other’s opinions because we have read aloud together and talked about books. That son is in college now and recently visited us. He left a book behind, saying, “I’d like you to read this. It tells you some of my thinking about relationships.”

Sharing a book makes for a delightful **companionship**. It is sharing yourself.



1.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안 읽어줌 → 아이가 책에 대해 말할 기회 X
2. 아이와 같이 책을 읽고, 공유하세요~ 내 아들한테도 그랬더니 대학 와서도 아들이랑 책 공유하네요 호호 ^^
3. 책을 같이 읽는 건 자신에 대해 얘기하며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



1.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아는 사람~?)



1. solitary: 고독한 2. delight: 기쁨, 즐거움 3. companionship: 우정, 교제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요지, Check

What most parents do is stop sharing books as soon as a child can read alone. That makes reading a solitary happening, with no chance to talk about a book or discuss what it is saying. Read aloud together. Read alone yourself, then say, “Have you read this book? I really liked it.” Once you begin to be book-sharers you will have no end of delight in sharing. Our son brought us a copy of Brian Jacques’ Redwall and said, “I think you’ll like this. It’s a good book.” We respect each other’s opinions because we have read aloud together and talked about books. That son is in college now and recently visited us. He left a book behind, saying, “I’d like you to read this. It tells you some of my thinking about relationships.” Sharing a book makes for a delightful companionship. It is sharing yourself.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책 공유를 그만두는 것이다 /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자마자. / 이는 독서를 고독한 일로 만든다, / 책에 대해 얘기할 기회도 없이 / 무엇을 말하는지 논의할 기회도 없이. / 같이 낭독해라. / 혼자 읽고, 얘기하라. “너 이 책 읽었어? 완전 좋음.” / 일단 책 공유를 시작하면 / 이 책 공유에서 끝없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 아들은 우리에게 이 책을 가져오곤 말하였다, /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책이에요.” /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 서로 낭독하였고 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 아들은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최근에 본가에 왔다. / 아들은 책을 하나 남기면서 얘기했다, /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인간 관계에 관한 제 생각이랑 비슷하네요.” / 책 공유는 더 즐거운 동반자 관계를 만든다. / 이는 너 자신을 공유하는 것이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요지, 1번

Having a **business card** is an obvious, but very important, everyday method to get your name, your **artwork**, and your message out. It's also an easy way for people to access your name at some later date. Amazingly enough, though, most artists don't use them. It's surprising but true that many fine artists are inept at designing anything with **type** and small graphic elements, especially for themselves. Maybe you think business cards are too businesslike. Try thinking of them as calling cards or, with your artwork on them, as art cards — little gifts you **give away**. Business cards are too important to your success to avoid. Imagine if you, with your business cards, and another artist, without business cards, meet a dealer or collector at the same time. Which one of you is more likely to be contacted later? It won't **matter** who's the better artist.

* inept at: ~에 서툰



Summary

1. Problem: 예술가도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게 넘 중요한데 여러 이유로 그러질 않음
2. However, 명함은 성공에 너무 중요하니까 인식을 바꿔서라도 꼭 가지고 다니길
3. 명함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둘 중에 딜러가 누구를 선호하겠니??



KEY Point

1. 예체능 친구들도 나중에 명함 꼭 들고 다니자아~



Vocabulary

1. a business card: 명함
2. artwork: 예술 작품
3. type: 활자, 글자
4. give away: 나눠주다
5. matter(v): 중요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요지, 1번

Having a business card is an obvious, but very important, everyday method to get your name, your artwork, and your message out. It's also an easy way for people to access your name at some later date. Amazingly enough, though, most artists don't use them. It's surprising but true that many fine artists are inept at designing anything with type and small graphic elements, especially for themselves. Maybe you think business cards are too businesslike. Try thinking of them as calling cards or, with your artwork on them, as art cards — little gifts you give away. Business cards are too important to your success to avoid. Imagine if you, with your business cards, and another artist, without business cards, meet a dealer or collector at the same time. Which one of you is more likely to be contacted later? It won't matter who's the better artist.

* inept at: ~에 서툰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상의 방법이다 / 당신의 이름, 작품,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 / 또한 쉬운 방법이다 /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 당신의 이름에 접근할 수 있는. / 꽤나 놀랍게도,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놀랍지만 사실이다 / 많은 순수 예술가들이 서툴다는 것은 / 활자와 작은 그림 요소를 지닌 무언가를 디자인 하는 데에 /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 / 아마 명함이 너무 비즈니스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 명함을 전화 카드라 생각하려 해보라, / 아니면 당신의 작품을 넣어서 작품 카드라 생각해도 좋다 / - 나눠주는 작은 선물처럼. / 명함은 성공에 너무 중요하다 / 포기하기에는. / 만약 당신이 명함이 있고 다른 예술가가 명함이 없고, / 딜러나 수집가를 동시에 만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 둘 중에 누가 더 나중에 연락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 누가 더 나은 예술가인지는 중요치 않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주장, 2번

Active, energetic, rambunctious boys are not bad boys and should not be made to feel so. Boys are naturally active. They have energy to burn. That's why they need **avenues** where they can be active, burn up that energy, and test their strength. Boys need exercise. It is not **a luxury**, it is a necessity. Video games don't provide exercise. And neither do television or computers. All boys need to romp and learn that even in rambunctious play, there are rules and **order**. Through sports and exercise, they learn to control their muscles, control their bodies, and even control their emotions and their minds. As a boy grows older, he can **transfer** these skills he learns **into** other areas of his life. He can never learn to control his energy if he is not allowed to experience the **fullness** of its power.

* rambunctious: 미친 듯이 날뛰는 ** romp: 까불며 뛰놀다



1. 남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건 자연스러운 것 → 활동적으로 에너지를 태울 방법이 필요
2. → 집에서 배그나 롤만 하지 말고 나가서 뛰어 놀고 스포츠를 해야 몸도 마음도 통제하고 질서를 배움
3. → 이렇게 배운 걸 나중에 다른 분야에 적용 가능. 에너지 발산 기회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됨



1. 중3지문? ㅎㅎ 수험생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땀을 빼는 게 좋다아~



1. avenue: 길, 방편
2. a luxury: 사치품
3. order: 질서, 순서
4. transfer A into B: A를 B로 이전시키다
5. fullness: 충만함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주장, 2번

Active, energetic, rambunctious boys are not bad boys and should not be made to feel so. Boys are naturally active. They have energy to burn. That's why they need avenues where they can be active, burn up that energy, and test their strength. Boys need exercise. It is not a luxury, it is a necessity. Video games don't provide exercise. And neither do television or computers. All boys need to romp and learn that even in rambunctious play, there are rules and order. Through sports and exercise, they learn to control their muscles, control their bodies, and even control their emotions and their minds. As a boy grows older, he can transfer these skills he learns into other areas of his life. He can never learn to control his energy if he is not allowed to experience the fullness of its power.

* rambunctious: 미친 듯이 날뛰는 ** romp: 까불며 뛰놀다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고, 미친 듯 날뛰는 남자 아이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 /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 남자 애들은 자연적으로 활발하다. / 이들은 태울 에너지가 있다. / 따라서 이들은 방도가 필요하다 / 활발하고, 에너지를 태우고, 힘을 시험해볼 수 있는. / 남자 애들은 운동이 필요하다. / 이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다. / 비디오 게임은 운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 TV나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 모든 남자 애들은 까불며 뛰놀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한다 / 막 날뛰는 놀이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 스포츠와 운동을 통해, 이들은 배운다 / 근육, 신체, 감정,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 남자 아이가 더 나이를 먹으면서, / 자신이 배운 이러한 능력들을 이전시킬 수 있다 / 삶의 다른 분야에. /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다 / 본인이 가진 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요지, 3번



Within your garden there will be a variety of microclimates resulting from the **placement** of structures (your own and those of your neighbours) and **surrounding** plants. Use these **to your advantage** when trying **(빈칸)** to grow plants less suited to the general climate of the region. Some years ago, for example, the flamboyant beauty of **tropical** hibiscus plants **captivated** me. Knowing there was no possibility they would **thrive out** in my **windswept**, exposed garden in **inland** Victoria, I planted them in pots and placed them against a **sheltered** north-facing stone wall. Every two or three years I divide and repot them and give many **root divisions** away. A **city** gardener I know in Melbourne was able to grow **bananas** in her garden by **taking advantage of** the **radiant heat** from the brick wall of a neighbouring block of **flats**.

* microclimate: 미기후(지표면과 가까운 좁은 범위의 기후) ** flamboyant 화려한
*** hibiscus 히비스커스(무궁화 등 아욱과에 속한 열대성 상록 관목)



1. 정원에는 미기후가 존재하는데, 지역 기후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이 맞지 않으면, 이 미기후를 잘 활용해라!
2. Ex.1: 아열대 식물을 내륙 지방에서 키우려고 잘 보호 시설을 갖추어 키우고 2, 3년마다 다시 분재도 함
3. Ex.2: 아파트 복사열을 활용해 바나나를 키우기도 함



1. **변형: 빈칸.** Problem: 해당 지역 기후에 맞지 않는 식물을 키우려 함(빈칸) → Solution: 미기후 활용
2. 난이도는 넘 쉬운데, 자리가 좋음!



1. placement: 배치
2. surrounding: 둘러 싸고있는
3. to one's advantage: ~의 이익에 맞게
4. suited to N: ~에 적합한
5. tropical: 열대의
6. captivate: 사로잡다
7. thrive out: 잘 자라 살아가다
8. windswept: 강한 바람에 노출된
9. inland: 내륙의
10. sheltered: 보호된
11. root division: 뿌리 분할
12. take advantage of: ~을 활용하다
13. radiant heat: 복사열
14. a flat: 아파트

Within your garden there will be a variety of microclimates resulting from the placement of structures (your own and those of your neighbours) and surrounding plants. Use these to your advantage when trying to grow plants less suited to the general climate of the region. Some years ago, for example, the flamboyant beauty of tropical hibiscus plants captivated me. Knowing there was no possibility they would thrive out in my windswept, exposed garden in inland Victoria, I planted them in pots and placed them against a sheltered north-facing stone wall. Every two or three years I divide and repot them and give many root divisions away. A city gardener I know in Melbourne was able to grow bananas in her garden by taking advantage of the radiant heat from the brick wall of a neighbouring block of flats.

* microclimate: 미기후(지표면과 가까운 좁은 범위의 기후) ** flamboyant 화려한
*** hibiscus 히비스커스(무궁화 등 아욱과에 속한 열대성 상록 관목)

당신의 정원 안에는 다양한 미기후가 있을 것이다 / 구조물 배치로 생긴 (본인 것과 이웃 것을 합쳐) / 그리고 주변 식물로 생긴. / 이러한 미기후를 이익이 되도록 잘 활용해라 / 식물을 키우려 할 때 / 해당 지역의 전반적 기후에 덜 적합한. / 예를 들어 몇 년 전, 열대 히비스커스 식물의 화려한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 이 식물이 바람이 강한, 노출되어 있는 정원에서 잘 살아갈 / 빅토리아 주 내륙에서, / 나는 이 식물을 화분에 심고 배치하였다 / 보호되어 있으며 북쪽을 향하는 벽돌벽에 기대어. / 매 2, 3년 마다 나는 이 식물을 나누어 다시 심는다 / 그리고 뿌리 부분들을 나누어 준다. / 멜버른에 내가 아는 한 시 소속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에 바나나를 기를 수 있었다 / 복사열을 활용해서 /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의 벽돌벽에서 나온.

Suppose that you and I are discussing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feel that he is the best president we have ever had. You totally disagree and feel that he is the worst one we have ever had.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s, you ask, “Why do you think he is the most important or best president?” I then give you a list of reasons, as well as some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he has done. Rather than trying to explain how I’m wrong or thinking up arguments about what I’ve said, you should try to listen to me and try to understand my **position**. In other words, the listener should try to hear and understand where the other person is coming from, and not prepare arguments or retaliations. The individual who is really listening tends not to **interrupt** and give her own point of view, but rather will ask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clarify** and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position.

* retaliation: 보복, 앙갚음



Summary

1. 나는 현 대통령이 최고라 생각하고 상대방은 최악이라 생각함. 나는 왜 최고인지 여러 이유를 댐
2. 이 때 상대방은 이에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입장을 잘 이해하려 해야 함
3. 경청하는 사람은 끼어들거나 지 의견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하려 함



KEY Point

1. 중3 지문인듯??



Vocabulary

1. position: 입장
2. interrupt: 끼어들다, 방해하다
3. clarify: 명확히 하다

Suppose that you and I are discussing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feel that he is the best president we have ever had. You totally disagree and feel that he is the worst one we have ever had.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s, you ask, “Why do you think he is the most important or best president?” I then give you a list of reasons, as well as some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he has done. Rather than trying to explain how I’m wrong or thinking up arguments about what I’ve said, you should try to listen to me and try to understand my position. In other words, the listener should try to hear and understand where the other person is coming from, and not prepare arguments or retaliations. The individual who is really listening tends not to interrupt and give her own point of view, but rather will ask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clarify and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position.

* retaliation: 보복, 앙갚음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2강: 주장, 4번

Suppose that you and I are discussing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feel that he is the best president we have ever had. You totally disagree and feel that he is the worst one we have ever had.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s, you ask, “Why do you think he is the most important or best president?” I then give you a list of reasons, as well as some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he has done. Rather than trying to explain how I’m wrong or thinking up arguments about what I’ve said, you should try to listen to me and try to understand my position. In other words, the listener should try to hear and understand where the other person is coming from, and not prepare arguments or retaliations. The individual who is really listening tends not to interrupt and give her own point of view, but rather will ask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clarify and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position.

* retaliation: 보복, 앙갚음

가정해봐 / 너랑 내가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 나는 현 대통령이 현재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 최고라고 생각해. / 너는 완전 반대하고 그가 지금까지 대통령 중 최악이라고 생각해. / 이어지는 토론에서, 니가 물어봐, / “왜 그가 가장 중요하거나 최고의 대통령이라 생각해?” / 내가 너한테 이유를 줄줄이 대겠지, / 그가 했던 중요한 업적들과 함께. / 내가 어떻게 틀렸는 지 혹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논쟁거리들을 생각해내기 보다, / 너는 내 얘기를 들으려 해야 하고 내 입장을 이해하려 해야 해. /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려 해야 해 / 상대방이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지, / 논쟁이나 보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 정말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끼어들어서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 추가적인 질문을 할거야 /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려고.